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2005 올해의 책들



최성일*

신문·잡지와 방송, 그리고 인터넷 서점의 '올해의 책' 선정은 출판계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덩달아 이를 검토하는 작업은 필

자의 새해맞이 연례행사가 되었다. 지난 연말에도 언론 매체들은 다투어 '올해의 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2005 올해의 책' 선정은 왠지 흥이 떨어지고 미진한 느낌이다.

지난해 언론 매체의 '올해의 책' 선정 열기는 예년에 비해 한풀 꺾였다. 2005년의 출판 트렌드를 다룬 책의 관련 기사를 크게 내보내는 것으로 대신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문은 '올해의 책' 선정도서의 종수를 줄이기도 했다. 그 밖의 언론 매체들은 예년의 선정 방식을 꾸준히 이었고, 상·하반기 각 10종씩 쪼갬다가 50종으로 숫자를 크게 늘린 <한겨레> 정도가 확대 개편한 경우다.

'2005 올해의 책' 총평

'2005 올해의 책' 선정 결과를 평하면, 대체

로 차별하면서도 상대적 빈곤 속에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는 하다. 2005년에는 2003년의 『나무』(열린책들)나 2004년의 『다빈치 코드』(베네프스)처럼 1년 내내 출판·서점가를 압도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온라인을 포함한 언론 매체 6곳이 뽑은 '2005 올해의 책' 가운데 2곳 넘게 복수 추천된 책은 모두 9종이다. 중복 선정된 책은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올해의 책'으로 뽑은 매체의 숫자다. 여섯 매체는 <한겨레> <동아일보> <중앙일보> <시사저널> <TV, 책을 말하다(한국방송, 이하 <TV 책>)> <교보문고·네이버> 등이다. <한겨레>의 경우, '올해의 책' 특집 별지 북 섹션의 표지에 등장하는 12종으로 제한하여 표본의 숫자는 60이다.)

- 『블루오션 전략』(6)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5)
-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4)
- 『대담』(4)
- 『니체 전집』(3)
- 『쾌도난마 한국경제』(2)
-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2)

*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위기의 노동』(2)

『통섭』(2)

『블루오션 전략』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다. 이는 필자가 작년 초 파악한 '2004 올해의 책' 선정 결과와 견주어도 표가 난다. 7곳(5곳은 2005년과 겹침)에서 선정한 '2004 올해의 책'에선 『미쳐야 미친다』가 최다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4곳에서 뽑혀 전체 선정 매체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을 뿐이다.

또 이러한 쓸림 현상은 2005년 그 간격이 더 벌어진 출판계의 양극화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시사저널> '올해의 책' 특별기획(제843호, 2005년 12/20)의 첫머리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지적한다.

“2005년은 출판계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연매출액 100억원을 넘긴 출판사가 30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 어린이 책과 실용서, 학습서에 치중한 곳들이다. 반면 중소 단행본 출판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신간은 1천부 팔기도 어려울 정도다. 경제 불황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문적 교양이 설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측면이 크다.”

공교롭게도 필자가 복수 추천을 쟁하기 위한 표본으로 삼은 '2005 올해의 책' 60종은, 중복 선정과 단일 선정의 비율이 정확히 50 대 50이다. 두 곳 이상의 매체에 선정된 8종의 추천 횟수를 다 합치면 30이 되고, 한 곳에서만 추천된 책이 30종에 이른다.

특히 소설책은 <한겨레>와 <시사저널>이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김연수, 창비)로 일치를 보았지, 나머지 매체는 제각각이다. <동아일보>는 『달려라 아버지』(김애란, 창비), <중앙일보>는 『카스테라』(박민규, 문학동네), <TV 책>은 『고래』(천명관, 문학동네), <교보문고·네이버>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공지영, 푸른숲)의 손을 들어 주었다.

올해의 책 VS 베스트셀러

흔히 좋은 책과 잘 팔린 책은 별개의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많이 팔린 책은 나쁜 책으로 매도당하기까지 한다. 둘 다 편견의 산물이다. '올해의 책'은 그해에 간행된 수천 종 중에서 양질의 것이라는 공감대가 전혀 없진 않으나, 이는 현재로서는 다분히 희망사항에 가깝다. 오히려 '올해의 책'이 베스트셀러보다 함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는 '올해의 책'에 화제



성이라는 요소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2005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종합 순위 베스트 10과 교보문고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2005 올해의 책 10선'은 잘 팔리는 책에 대한 선입견을 확인하는 듯하다.

<교보문고·네이버> '2005 올해의 책 10선'

『블루오션 전략』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 『2010 대한민국 트렌드』
- 『피짜 경제학』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오 자히르』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공중 그네』
- 『꿈꾸는 책들의 도시』
- 『지문 사냥꾼』

2005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

1.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2. 『다빈치 코드 1』
3. 『모모』
4. 『연금술사』
5. 『블루오션 전략』
6.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7. 『해커스 토크(READING)』
8. 『2010 대한민국 트렌드』
9.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제6권 1』
10. 『설득의 심리학』

위의 목록에서 겹치는 책은 『블루오션 전략』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2010 대한민국 트렌드』 등 3권이다. 하나 이것으로 잘 팔린 책은 올해의 책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도서정가제 관련 법규에서 구간으로 분류되는 책들이 교보문고 2005년 베스트셀러 종합 목록의 상위를 다수 차지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미하엘 엔데의 『모모』는 1970년대 후반의 베스트셀러였다.



『강의』 VS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올해의 책’은 해마다 12월 중하순 경에 발표된다. 때문에 12월에 나온 책은 이듬해 ‘올해의 책’으로 뽑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2005 올해의 책’에서는 신영복의 『강의』(돌베개)가 그렇다. ‘올해의 책’을

선정하는 매체들이 대상이 되는 도서의 출간 시기를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못박고 있어 문제 삼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 4곳이 출간 시기를 턱걸이한 『강의』를 ‘올해의 책’으로 뽑은 것은 이 책의 성가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만큼 2005년에 불만한 책이 덜 나왔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강의』와 마찬가지로 2004년 12월 출간된 탄취잉의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김명은 옮김, 위즈덤하우스)가 주류 언론으로부터 받은 홀대와 대조를 이룬다.



기성 언론 어디서도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올해의 책’으로 선택하지 않은 데에는 베스트셀러를 낮춰 보는 편견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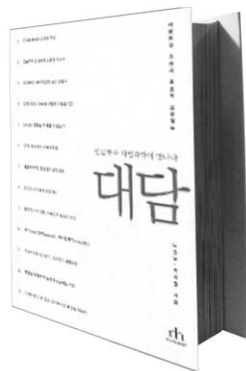
다. 책이 한창 잘 나갈 적에 불거진 이 책이 편저서라는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2004 올해의 책' 선정에서의 『다빈치 코드』의 선전을 염두에 두면, 유달리 동양어권 번역서 평가에 인색한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이 발동한 탓인지도 모른다.

2005년 베스트셀러 종합 1위가 독자들의 호감을 산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교보문고의 '2005 올해의 책 10선'은 필자가 살펴본 목록으로는 유일하게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포함시켰다. 이 목록은 596개 출판사가 출품한 도서 2,855종을 대상으로 교보문고 북 마스터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네이버의 네티즌 의견은 9만 4천여 건에 이르렀다.

언론 매체는 대부분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물어 담당 기자들이 정한다. 외부 인사는 주로 학자와 출판 전문가, 출판계 현업 종사자들이다. 최종 선택은 출판 담당 기자들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화』와 『대담』

리영희·임현영의 『대화』(한길사)와 도정일·최재천의 『대담』(휴머니스트)의 선정 결과 또한 대조적이다. 『대담』은 4곳이 '올해의 책'으로 뽑았지만, 『대화』는 <한겨레> 한



곳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판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표명해서라기보다는 현존하는 좌파를 대하는 보수 매체의 알레르기로 풀이된다.

『위기의 노동』이 보수 신문의 외면을 당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책은 <시사저널>과 <TV 책>에서 '올해의 책'으로 정하였다. '2005 올해의 책'에서는 <TV 책>의 목록이 주목을 요한다. 2005년 12월 26일 월요일 밤 12시 KBS-1을 통해 방송된 <TV 책>이 선정한 '올해의 책'은 다음과 같다.

- 『강의』(신영복 지음, 돌베개 펴냄)
- 『대담』(도정일·최재천, 휴머니스트)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아, 푸른숲)
- 『고래』(천명관, 문학동네)
- 『위기의 노동』(최장집, 후마니타스)
- 『한국전쟁』(박태균, 책과 함께)
- 『한국 속의 세계 1, 2』(정수일, 창비)
-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김용준, 돌베개)
- 『블루오션 전략』(김위찬·르네 마보안 지음, 강혜구 옮김, 교보문고)
-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진중권, 휴머니스트)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한 권을 빼곤 국내 저자의 책이다. 『블루오션 전략』은 공저자의 한 사람이 한국인이자 절반은 국내서로 볼 수도 있겠다. <TV 책>이 꼽은 '2004 올해의 책'에는 번역서가 네 권 있었다. 반면, 그간 국내서만으로 '올해의 책'을 뽑던 <한겨레>는 2005년 선정도서외의 숫자를 크게 늘리면서 번역서도 적극 수용하였다.

'2005 올해의 책'

2005년 올해의 책은 『블루오션 전략』이다. 각 매체의 선정 이유로 이 책의 평가를 대신한다.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에 대한 저자들의 깊은 통찰과 기막힌 아이디어들이다.”(〈시사저널〉 이동현/미 듀크대 경영대학 방문 교수)

“블루오션 전략가들은 경쟁자를 이기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그 대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 경쟁 자체에서 벗어난다.”(〈동아일보〉)

“블루오션은 아직까지 아무도 가본 적도, 목표로 삼은 적도 없지만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미지의 새로운 시장이다. 한정된 시장을 놓고 사생결단의 혈전을 치르는 레드오션(붉은 바다)의 핏빛 경쟁체제를 벗어나 나만의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하지만 희망에 찬 이 메시지가 오랜 경기침체로 주눅 든 한국 독자를 사로잡았다.”(〈중앙일보〉 김중수 논설위원)

“레드오션 대 블루오션. 경쟁 대 비경쟁. 일종의 이분법적 브랜드 전략의 성공스토리인 셈이다. 경기 침체 터널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더없

이 잘 먹혀들어갔다.”(〈한겨레〉 최우성/〈이코노미21〉 편집장)

그 밖의 목록으로는 <창비어린이>(2005년 겨울호, 통권 11호)의 설문조사로 본 2005년 '올해의 어린이책'과 <동아일보>의 연재 기획 '2005 프로가 뽑은 프로'의 <6> 출판 편(2005년 12월 27일자 A19면)에 실린 '2005년 프로가 뽑은 출판계 베스트 5'가 있다. '프로가 뽑은 출판계 베스트 5' 중에서 출판물과 관련된 것 둘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2005년 최고의 국내 저자 출판물(괄호 안 숫자는 득표수)

1.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13)
 2. 『강의』(11)
 3. 『대화』(9)
 4. 『대담』(7)
- 『괘도난마 한국경제』(장하준 · 정승일, 부키)(7)

2005 최고의 번역 출판물

1. 『피짜경제학』(스티븐 레빗, 스티븐 더브너 지음, 안진환 옮김, 웅진지식하우스)(8)
 2. 『블루오션 전략』(7)
 3.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로렌 슬레이터, 조중열, 에코의서재)(6)
- 『통섭』(에드워드 윌슨, 최재천 · 장대익, 사이언스북스)(6)
- 『문명의 붕괴』(제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현, 김영사)(6) 